

『표준국어대사전』의 고유어 접두사 연구

서정호*

|| 차례 ||

1. 머리말
2. 파생접사의 분류와 접두사의 설정 기준
3.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접두사 목록과 분류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국어 파생어의 ‘접두사’와 국어 합성어의 ‘어기’가 모두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국어 접두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먼저 국어 접두사가 문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선행 논의들을 살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국어의 고유어 접두사들은 문법적인 기능보다 어휘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러 선행 논의들에서 설정한 국어 접두사의 기준들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몇몇 선행 논의들에서는 국어 ‘접두사’와 ‘어기’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살폈다.

다음으로 『표준국어대사전』 접사 표제어 선정 원칙을 살피고, 접두사와 어기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접두사와 관련된 어기와의 ‘형태의 유사성’을 1차 기준으로 삼고, 접두사와 관련된 어기와의 ‘의미의 관련성’을 2차 기준으로 삼았다. 그에 따

* 동국대학교, dong-tag@hanmail.net

라 『표준국어대사전』의 접두사들 중에서 ‘1차 기준’과 ‘2차 기준’을 모두 만족한 접두사는 해당 형태를 어기로 판정하고, ‘1차 기준’을 만족하지만 ‘2차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접두사는 해당 형태를 접두사로 판정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 웹버전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한자어 접두사를 제외한 95개의 고유어 접두사를 대상으로 ‘1차 기준’과 ‘2차 기준’을 적용하여 살핀 결과, 접두사 ‘결(1,2)-, 겹-, 늦-, 도래-, 되-, 들1-, 막1(3)-, 맞-, 맨-, 먹-, 물-, 선-, 설-, 수/숫2-, 실-, 암-, 온-, 잔-, 줄-, 쪽-, 참(1,2)-, 해(1)/헛(1)-, 흘-’은 어기로 판정하였다.

국문주제어: 표준국어대사전, 접두사, 어기, 형태의 유사성, 의미의 관련성.

1. 머리말

국어 단어의 조어와 관련된 논의들 중에는 단어의 내부 구조의 관계를 분석하여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핀 논의들이 있다. 이런 논의들은 국어에서 흔히 ‘파생’과 ‘복합’이라는 단어 조어 방식이 적용되어, 각각 ‘파생어’와 ‘복합어’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¹⁾ 이익섭(1975)에서는 국어의 조어 방식과 관련하여, 단어를 일차적으로 ‘단일어(單一語)’와 ‘합성어(合成語)’로 구별하고, 이차적으로 ‘합성어’를 ‘IC (Immediate Constituent) 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파생어’와 ‘복합어’로 분류하였다. 이익섭(1975: 162-163)에서 분류한 ‘파생어’와 ‘복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ㄱ. 파생어 : 그 語幹의 IC중의 하나가 派生接辭인 單語

1) 본고의 ‘파생어’, ‘복합어’, ‘어기’, ‘어근’, ‘어간’, ‘접사’ 등의 용어는 이익섭(1975)의 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각 용어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었다.

ㄴ. 복합어 : 그 語幹의 IC가 모두 語基(語根 및 語幹)이거나 그보다 큰 言語形式인 單語

(1ㄱ-ㄴ)을 통해, 단어를 IC분석하였을 경우 ‘파생접사’의 유무로 ‘파생어’와 ‘복합어’를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때의 ‘파생접사’ 중 ‘접두사’의 설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파생접사’ 중 ‘접두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1장에서 언급한 ‘파생어’와 관련한 파생접사의 분류 및 접두사의 설정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피고, 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3장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web version)』에서 접두사로 처리한 항목을 중심으로 해당 항목들이 접두사로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4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고, 몇몇 문제점에 대해 살핀다.

2. 파생접사의 분류와 접두사의 설정 기준

2.1 파생접사의 분류

현재까지 국어의 ‘파생접사’ 중에서 ‘접두사’는 어기의 의미를 더하거나 변하게 하는 일종의 어휘적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접미사’는 어기의 의미를 더하거나 변하게도 하지만 주로 어기의 통사범주를 변하게 하는 일종의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접두사’와 ‘접미사’의 기능은 조금 다른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이에 대해 유현경(1999: 195-197)에서 몇몇 ‘접두사’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 (2) ㄱ. 결합하는 어기의 품사를 바꿈 : 매(每)-, 대(對)-
 ㄴ. 어기와 결합하여 파생된 단어를 부정어로 만들 :

부/불(不)-, 비(非)-, 미(未)-

ㄷ. 경어법과 관련이 있음 : 귀(貴)-, 폐(弊)-

ㄹ. 단어 외에 통사론적 구성인 구에 붙음 : 속(續)-

ㄴ. 파생된 용언을 대칭용언으로 바꿈 : 엇-, 맞-

(2ㄱ-ㄴ)의 접두사는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2ㄱ-ㄹ)은 모두 한자어 접두사의 예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고유어 접두사와 대비되는 한자어 접두사의 특징 중 하나로 처리할 수도 있다.²⁾ (2ㄴ)의 ‘엇-’, ‘맞-’은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듯한 고유어 접두사의 예인데, 이때의 ‘엇-’, ‘맞-’이 결합하는 후행 용언을 대칭용언으로 파생시키는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유현경(1999: 197)에서 ‘엇-’과 ‘맞-’은 ‘어긋나게’, ‘비뚤로’와 ‘미주’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았는데, ‘엇-’과 ‘맞-’에는 각각 ‘기준이 되는 대상과 그에 반하는 대상’, ‘복수(複數)의 대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어휘적인 의미로 인하여, ‘엇-’과 ‘맞-’이 결합한 용언에 ‘대칭성’과 관련된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엇-’또는 ‘맞-’과 결합한 후행하는 어기의 품사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점은 ‘접미사’가 주로 해당 접미사의 어휘적인 의미와는 상관없이 선행하는 어기의 품사를 바꾸는 ‘문법적 기능’을 한다는 점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만약 (2ㄴ)의 예들을 문법적 기능을 가진 고유어 접두사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어에서 이 예들 외에는 문법적 기능을 더하는 듯이 보이는 ‘고유어 접두사’의 예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2ㄴ)의 예들도 접두사로 설정하지 않거나 예외로 보아야 할 것

2) 노명희(2004: 130-146)에서는 ‘하다’ 결합 유형을 바꾸는 접두한자어 ‘무(無)-, 불(不)-, 몰(沒)-, 대(大)-, 명(名)-’ 및 어기의 분포를 제한하는 접두한자어 ‘주(駐)-, 재(在)-, 친(親)-, 반(反)-, 피(被)-, 범(汎)-’ 등을 어기의 문법적 범주를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노명희(2004: 124)에서는 이런 접두한자어를 국어에서 접두사로 볼 것인지, 어근 또는 관형사로 볼 것인지 등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다.³⁾ 그렇다면 지금까지 논의한 국어의 ‘접두사’와 ‘접미사’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ㄱ. 접두사 : 후행하는 어기와 결합하여, 그 어기의 의미에 어휘적인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여 그 어기의 의미를 바꿈.

ㄴ. 접미사 : 선행하는 어기와 결합하여, 그 어기의 문법적인 기능을 바꿈. (해당 어기의 의미에 어휘적인 의미를 조금 더하거나 제한하기도 함)

(3ㄱ-ㄴ)과 같이 접두사는 후행하는 어기에 ‘어휘적인 의미’를 더하고, 접미사는 선행하는 어기에 ‘문법적인 기능’을 바꾼다는 점을 각각의 특징으로 정리한다면, 그 중에서 ‘접두사’가 가진 ‘어휘 의미’와 ‘어기’가 가진 ‘어휘 의미’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접두사와 어기가 모두 ‘어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은 ‘접두사’와 접두사의 자리에 나타난 ‘어기’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과 관련이 있고, 곧 사전들에서 ‘접두사’로 구분한 항목이 실제로는 ‘어기’로 구분할 수 있을 가능성과도 관련이 있다.

2.2 접두사의 설정 기준

‘접두사’는 대체로 체언 또는 용언 어간 등의 어기에서 접사화를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몇몇 선행 논의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3) 김계곤(1968-1: 83)에서는 ‘대변, 둘되다, 대변에’에서 ‘대-’와 ‘둘-’이 품사를 바꾸는 앞가지(=접두사)임을 논의하였고, 구분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138)에서는 형용사 ‘강마르다, 메마르다’를 접두사 ‘강-, 메-’와 동사 ‘마르다’의 결합으로 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두사 ‘강-, 메-’로 인해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의 품사가 달라지는 예임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접두사가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듯한 예들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선행논의들에서 언급한 ‘대-’와 ‘둘-’, ‘강-’과 ‘메-’를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접두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기준으로 접두사를 설정하였다.

(4) 접두사의 설정 기준

논 의	접두사를 설정하는 기준	
기주연 (1991)	1) 의존성, 2) 어기의 자립성, 3) 분리성, 4) 후속어의 제약성, 5) 대체 가능성, 6) 접미사 연결 가능성, 7) 의미의 변화성	
이흥식 (1993)	1) 비독립성(비자립성), 2) 단음절성, 3) 후속어근 독립성, 4) 어원 비유지성, 5) 비합성이 선행소, 6) 접미사와 비연결성, 7) 비확대 가능성	
안효경 (1994)	형태론적 기준	1) 형태적 자립성, 2) 분포 제약, 3) 확대 가능성, 4) 후행 요소의 성격, 5) 수식 관계, 6) 형태 변화, 7) 다른 형태소와의 대체 가능성
	의미론적 기준	1) 의미 변화, 2) 반의어-동의어의 존재
이재성 (1997)	명사가 후행결합하는 경우	1) 후속 어근 제한성, 2) 성상 관형사와의 결합 가능성, 3) 의존명사 ‘것’과의 결합 불가능성, 4) 대체 불가능성, 5) 변화의미의 비독립성
	동사·형용사와 후행결합하는 경우	1) 이동 불가능성, 2) 생략 불가능성, 3) 인용도 ‘-하고’와의 결합 불가능성, 4) 보조사 결합 불가능성, 5) 의미적 단절성
김창섭 (1998)	1) 원 단어와의 유연성, 2) 의미의 투명성 혹은 생산성	
유현경 (1999)	주조건	1) 의미의 투명성, 2) 조어의 생산성
	부조건	1) 어근의 불규칙성, 2) 의미의 확장
박형우 (2004)	1) 비자립성, 2) 분포제약, 3) 동일어근부재, 4) 비분리성, 5) 의미변화, 6) 후행 어 자립성	

(4)를 통해, 기존 논의들에서 접두사를 설정하면서 우선시하는 기준이 논자마다 다르고, 그에 따라 기존의 논의들에서 분류한 접두사 목록도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논의들에서 ‘의존성, (형태적) 자립성’ 등의 형태적 기준과 ‘의미의 투명성, 의미 변화’ 등의 의미적 기준을 접두사를 설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4)와 같이 접두사의 설정 기준을 정리하여 접두사를 설정하는 논의들과는 달리, 이관규(1988)에서는 접두사를 설정하는 근거로 ‘의미의

약화’, ‘비자립성’, ‘형태의 변이’, ‘분포의 한정성’ 등을 거론하고, 이들은 접두사 설정의 근거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국어에서 접두사로 파악한 것들이 어근임을 논의하였고, 구본관(2002: 110)에서는 어휘적인 의미를 갖는 파생접사는 의미의 관점에서 보면 ‘어근’에 가깝고, 이런 파생어의 형성은 ‘합성’에 더 가까울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 논의들은 국어에서 ‘접두사’라는 개념의 설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접두사’와 ‘어근’의 관련성이 높음을 지적한 논의들로, 이는 본고의 2.1절에서 ‘접두사’와 ‘어기’가 관련성이 있음을 제기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

또한 이선영(2006)에서는 중세국어의 조어법 중에서 어간이 복합된 단어가 다수 등장하고, 현대국어에서도 어간이 복합된 단어가 생성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⁴⁾ 이 논의의 어간복합어에는 현대국어에서 선행 어간을 접두사로 분석한 단어가 포함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현대국어에서 접두사들 중 몇몇은 용언 어간, 체언 등으로 볼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외에도 현대국어에서 대체로 용언 어간에는 ‘부사’가 선행되고 체언에는 ‘관형사’ 및 용언의 ‘관형사형’이 선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사전에서 접두사로 설정한 항목을 살펴보면, 몇몇 접두사들은 ‘부사’ 혹은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등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전에 등재된 접두사 목록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 일부는 어기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나아가 (1)에서 살핀 이익섭(1975) 등의 논의들에서 국어의 조어 방식을 ‘합성’과 ‘파생’ 등으로 구분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의문과도 관련된다.⁵⁾

4) 이선영(2003-1: 34-35)에서는 용언 어간의 ‘유리성’을 ‘자립적’과 ‘의존적’으로 구분하고, ‘용언 어간의 자립적 유리성’은 후기 중세국어 단계에서 사라졌으나, ‘용언 어간의 의존적 유리성’은 국어의 고유한 특성으로 현대국어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때의 ‘용언 어간의 의존적 유리성’은 용언의 어간이 어미와 유리되어 단어의 선행 성분으로 어휘 형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선영(2006)의 ‘어간복합어’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

3.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접두사 목록과 분류

본장에서는 먼저 여러 논의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 ‘접두사’와 ‘어기’를 판정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다음으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web version)』에서 접두사로 처리한 목록을 정리하고,⁶⁾ 해당하는 접두사들 중에서 용언 어간, 명사, 부사, 관형사 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존재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접두사로 분류할 수 있는 목록에 대해 논의한다. 본고의 자료가 되는 <표준web>과 관련하여, 국립국어연구원 편(2000: 51-52)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접사의 표제어 선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5) 『표준국어대사전』의 접사 표제어 선정 원칙

1	분석 가능성(많은 복합어에서 그 단어를 구성하는 내적 성분으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하며, 분석된 두 성분 중 접사로 의심되는 성분 이외의 한 성분은 사전에 등재된 표제어이어야 한다.)
2	비자립성(복합어로부터 분석된 내적 성분이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사용되지 못해야 한다.)
3	생산성(복합어로부터 분석된 성분이 새로운 단어 형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5) 이와 관련하여, 최윤지(2013)에서도 ‘파생’과 ‘합성’, ‘어기’와 ‘접사’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한 구분과 관련한 문제 제기와 반성적 논의가 있었다. 그 중 최윤지(2013: 271)에서 볼어나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 등에서는 ‘접두파생’과 ‘합성’을 함께 묶는 경우가 있다는 논의는 언어유희론의 관점에서 참고할 수 있다.

6) 『표준국어대사전』은 국립국어연구원에서 1999년에 편찬한 이후,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서 공개되고 있다. 본고에서 살피는 『표준국어대사전(web version)』은 2008년에 국립국어원에서 개정한 『표준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후 웹버전에서 여러 차례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1999년에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 및 2008년에 개정한 『표준국어대사전』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이하에서 『표준국어대사전(web version)』은 “<표준web>”으로 약칭한다.

4	의미 독자성(비자립성 조건에 대한 검토에서 자립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와 형식상 공통점이 있더라도 의미가 달라서 독자성이 있으면 접사화한 것으로 본다.)
5	위와 같은 조건은 파생어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접사에만 적용될 수 있고, 어기와 접사의 의미론적 성격으로 인해 파생어가 등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격의 접사는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는 않더라도 접사로 처리한다.

(5)와 같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접사를 표제어로 선정하는 원칙은 ‘분석 가능성, 비자립성, 생산성, 의미 독자성’이고, 이에 따라 국립국어연구원 편(2000: 54)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고유어계 접두사의 등재 원칙을 “복합어의 선행 성분으로 사용되며, 자립성을 가지지 않는 단어의 성분은 접두사로 처리한다. 단, 새로운 단어 형성에 참여할 가능성(생산성)이 적은 경우는 제외한다. 비통사적 합성 동사의 선행 성분은 의미 특수화를 겪지 않은 경우 등재하지 않는다.”와 같이 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접두사를 설정하는 기준에 대한 선행 논의들 및 국립국어연구원 편(2002)의 원칙들을 감안하여,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와 어기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접두사와 관련된 어기와의 ‘형태의 유사성’을 1차 기준으로 삼고, 접두사와 관련된 어기와의 ‘의미의 관련성’을 2차 기준으로 삼는다. 이때의 1차 기준인 ‘형태의 유사성’은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와 어기의 해당 형태가 동일하거나 모음만 다른 경우이고, 2차 기준인 ‘의미의 관련성’은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와 어기의 뜻풀이에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이다.⁷⁾

7) 익명의 심사위원께서는 ‘접두사’와 ‘어기’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비자립성’과 ‘생산성’, ‘의미의 독자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먼저 ‘비자립성’의 경우에는 해당 형태가 문장에서 독립하여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되는데, 하나의 사전에서 형태가 같거나 유사하면서 의미도 공통되는 접두사와 어기가 모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자립성’의 유무로 ‘접두사’와 ‘어기’를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고의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web>의 접두사들 중에서 ‘1차 기준’과 ‘2차 기준’을 모두 만족한 접두사는 해당 형태를 어기로 판정한다. ‘1차 기준’을 만족하지만 ‘2차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접두사는 해당 형태를 접두사로 판정하는데, 이런 형태들 중에는 문법화를 거쳐 의미가 특수화된 예들도 포함된다. ‘1차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접두사는 ‘2차 기준’에 상관없이 해당 형태를 접두사로 판정한다. 본고의 접두사와 어기를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⁸⁾

(6) 본고의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와 어기를 판정하는 기준

	어기와의 ‘형태의 유사성’	어기와의 ‘의미의 관련성’	어기/접두사 판정
1	O	O	어기
2	O	X	접두사
3	X	-	접두사

<표준web>에서 ‘품사’는 ‘접사’로 설정하고, ‘찾는말’의 ‘뜻풀이’에서 ‘접두사’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검색하면, 총 191개의 접두사 목록을 확인

다음으로 ‘생산성’의 경우에는 송철의(1992/2008: 27-31)에서 생산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하나의 사전에서 형태가 같거나 유사하면서 의미도 공통되는 접두사와 어기가 모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성’의 유무로 하나의 복합어에서 분석되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형태가 ‘어기’인지 ‘접두사’인지 판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고의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미의 독자성’의 경우에는 본고에서도 해당 형태를 접두사로 처리하고 있다. 다만, 본고의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들을 ‘접두사’와 ‘어기’로 판정하는 과정에서 1차 기준인 ‘형태의 유사성’을 만족하고 2차 기준인 ‘의미의 관련성’을 만족하지 않는 형태들 중에 ‘의미의 독자성’을 가진 형태들이 일부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본고의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 8) 본고에서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 어기의 형태와 해당 어기의 뜻풀이는 <표준web>에 등재된 내용에 의거하였다. <표준web>에 등재된 각 어기 형태와 그 뜻풀이에 문제가 있다면, 본고의 3.3절에서 제시할 <표준web>의 고유어 접두사 목록은 수정될 것이다.

할 수 있다. 다만 이 목록 안에는 한자어 접두사가 포함되어 있다. 한자어 접두사의 경우에는 서론에서 잠시 언급하였다시피, 고유어 접두사와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 한자어 접두사는 대체로 원단어의 의미와 관련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고유어 접두사보다 생산성이 높아서, 일종의 어기(또는 어근)로 파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유어와 한자어 계열의 단어 조성 방식도 다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표준web>에 등재된 한자어 접두사를 제외하고, 고유어 접두사를 대상으로 해당 형태의 어기 가능성을 살피고자 한다.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한자어 접두사를 제외한 고유어 접두사는 총 95개인데, 이 목록에는 ‘북한어(7개)’와 ‘옛말(10개)’과 관련된 용례가 포함되어 있다. <표준web>의 접두사 목록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 두 용례들을 먼저 살펴보겠다.

3.1 <표준web>의 북한어, 옛말 고유어 접두사

<표준web>의 고유어 접두사 목록 중, ‘북한어’와 ‘옛말’의 예는 다음과 같다.

(7) ㄱ. 따-, 숯-, 올라-, 외-, 통(1,3,4)-, 해-, 히-⁹⁾

9) (7ㄱ)의 예 중에서 ‘숯-’과 ‘통-’은 <표준web>에서 북한어 접두사 외에 고유어 접두사의 예도 있다. 이운영(2002: 41-42)에서 <표준web>에 수록된 북한어는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된 어휘임을 밝혔는데, <표준web>의 ‘숯-’과 ‘통-’의 뜻풀이와 『조선말대사전』의 ‘숯-’과 ‘통-’의 뜻풀이는 조금 다르다. 『조선말대사전』의 ‘숯-’은 <표준web>의 뜻풀이인 ‘더럽혀지지 않아 깨끗한’의 의미와 유사한 ‘깨끗한, 순진한’의 의미가 등재된 반면, ‘통-’은 <표준web>의 고유어 뜻풀이인 ‘통째’와 ‘온통, 평균’의 의미 중에서 ‘통째’와 관련된 ‘가르거나 쪼개거나 하지 않고 통째임’의 의미만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표준web>에서 3가지 의미로 분류한 접두사 ‘숯-’은 모두 ‘북한어’에도 쓰이는 것으로 보아 (7ㄱ)에서 ‘숯-’으로 처리하였지만, <표준web>에서 4가지 의미로 분류한 접두사 ‘통-’은 2번째 의미를 제외한 다른 의미들만 ‘북한어’에 쓰이는 것으로 보아 (7ㄱ)에서 ‘통(1,3,4)-’로 처리하였다. 이하에서 <표준web>의

ㄴ. 답-, 마-, 민-, 미-, 박-, 비-, 알-, 횃-, 혼-, 회-

(7ㄱ)은 <표준web>의 고유어 접두사 목록 중에서 ‘북한어’로 분류한 항목이고, (7ㄴ)은 <표준web>의 고유어 접두사 목록 중에서 ‘옛말’로 분류한 항목이다. (7ㄱ)의 예들은 현재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해당 항목들이 접두사로만 사용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7ㄴ)의 예들은 통시적으로 해당 항목들이 접두사로만 판별을 해야 하는 항목인지에 대해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7ㄱ-ㄴ)의 몇몇 예는 ‘어기’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7ㄱ)의 예들 중에서 ‘아래에서 위로 향하여’라는 의미인 ‘올리-’와 ‘몹시 비둘거나 바르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인 ‘외-’는 각각 ‘낮은 곳에 있는 것을 높은 곳으로 옮기다’ 등의 의미로 정의된 용언 어간 ‘올리-’와 ‘물건이 좌우가 뒤바뀌어 놓여서 쓰기에 불편하다, 마음이 꼬여 있다’의 의미로 정의된 용언 어간 ‘외-’와 형태·의미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⁰⁾ ‘땅’이라는 의미인 ‘따-’는 명사 ‘땅’의 선대형인 ‘따ㅎ’과 형태·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 ‘해-’와 ‘히-’는 형태가 유사한데 ‘흐뭇하게, 매우’라는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한 점을 고려하면 어원이 같거나 서로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7ㄴ)의 예들 중에서 ‘마ㅁㄴ-’, ‘미ㅁㄴ지-’의 ‘마-’와 ‘미-’는 각각 현대 국어의 ‘메마르-’, ‘매만지-’의 ‘메-’와 ‘매-’와 대응하는데, <표준web>에서 ‘메-’는 접두사로 분류한 반면, ‘매-’는 대응되는 접두사가 없다. 이때의 ‘매-’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심하게, 또는 보통 정도보다 더 공을 들여’의 의미로 파악한 부사 ‘매’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휘휘 두르거나 감겨

여러 의미 중 특정한 의미로 쓰인 접두사를 명시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처리한다.

10) <표준web>에는 북한어와 관련된 접두사 ‘외-’에도 고유어 접두사 ‘외-’도 등재되어 있는데, 고유어 접두사 ‘외-’는 3.2.4절에서 논의한다.

나 돌림’이라는 의미인 ‘휫-’은 <표준web>의 접두사 ‘휘-’와 관련이 있고, ‘흔-’과 ‘회-’도 형태가 유사하면서 ‘마구’라는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파악한 점을 고려하면 어원이 같거나 서로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7)의 예들을 어기로 볼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접두사로 보고자 하나, (7)의 예들 중에서 용언 어간이나 체언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 몇몇 접두사들은 어기로 볼 가능성도 있다.

3.2 <표준web>의 북한어, 옛말을 제외한 고유어 접두사

<표준web>의 고유어 접두사 목록 중, ‘북한어’와 ‘옛말’과 관련된 용례를 제외한 접두사는 모두 80개로, 각각의 예는 다음과 같다.

(8) <표준web> 고유어 접두사 중 ‘북한어, 옛말’을 제외한 목록

가시-, 강-, 개-, 갈-, 겁-, 군-, 날-, 닳-, 닳1-, 닳2-, 도래-, 돌-, 되-, 들-, 뒤-, 드-, 들1-, 들2-, 들이-, 떡-, 막1-, 막2-, 만-, 말-, 맞-, 맨-, 맹-, 먹-, 메-, 물-, 민-, 밭-, 벌-, 불1-, 불2-, 빗-, 살-, 새-, 셋-, 선-, 설-, 쇠-, 수-, 숫1-, 숫2-, 시-, 실-, 싹-, 알-, 암-, 얼-, 엇-, 옛-, 온-, 울-, 외-, 웃-, 잔-, 줄-, 짓-, 짝-, 쪽-, 차-, 찰-, 참-, 처-, 치-, 통-, 풋-, 한1-, 한2-, 핫1-, 핫2-, 해-, 햇-, 헛-, 흘-, 흘-, 휘-

(8)의 목록을 후행하는 어기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9) ㄱ. 체언에만 선행하는 접두사

: 가시-, 강-, 개-, 겁-, 군-, 날-, 도래-, 돌-, 들-, 들1-, 떡-, 막1-, 막2-, 만-, 말-, 맨-, 맹-, 먹-, 메-, 민-, 밭-, 벌-, 불1-, 불2-, 살-, 선-, 쇠-, 수-, 숫1-, 숫2-, 실-, 알-, 암-, 온-, 웃-, 잔-, 줄-, 짝-, 쪽-, 차-, 찰-, 참-, 풋-, 한1-, 한2-, 핫1-, 핫2-, 해-, 햇-, 헛-, 흘-, 흘-

ㄴ. 용언에만 선행하는 접두사

: 데1-, 데2-, 되-, 뒤-, 드-, 들2-, 들이-, 새-, 셋-, 설-, 시-, 싹-,

엇-, 처-, 치-, 휘-

ㄷ. 체언과 용언에 선행하는 접두사

: 꺾-, 늦-, 덧-, 맞-, 몰-, 빗-, 얼-, 엇-, 울-, 외-, 짓-, 통-, 헛-

<표준web>에서는 (9)의 접두사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부 혹은 몇몇’의 ‘명사 혹은 동사’ 등에 붙는다는 제약을 보이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중 ‘새/셋-’과 ‘시/싹-’, ‘차/찰-’, ‘해/햇-’ 등은 음절 구조에 따라 접두사가 선택되는 음운론적 제약을 보이는 점을 명시하였고, ‘수/숫-’은 특정 어휘에 따라 접두사가 선택되는 어휘론적 제약을 보이는 점을 명시하였다. 이는 대체로 접두사는 일부 어기와만 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형태론적 제약을 보이는 점과 비교하면 특이한 현상인 듯하나, 합성어를 만들 때에도 각각의 제약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소위 ‘파생어’와 ‘합성어’는 각각의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절에서는 (9)와 같이 후행하는 어기의 종류에 따라 <표준web>의 고유어 접두사들을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3.2.1 <표준web>의 체언에만 선행하는 고유어 접두사

(9-1)을 살펴보면, 체언에만 선행하는 접두사는 51개이다. 현대국어에서 명사,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이 체언에 선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접두사는 명사,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9-1)의 접두사들 중에서 <표준web>에 등재된 명사,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 등의 형태와 유사하며, 그 의미가 관련이 있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10) ㄱ. 꺾-, 도래-, 들1-, 먹-, 수/숫2-, 실-, 압-, 줄-, 쪽-, 참-, 해/햇-, 헛-, 흘-

ㄴ. 온-

ㄷ. 맨-, 선-, 잔-

(10ㄱ)은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표준web>에 등재된 명사와 형태·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이다.

1) 접두사 ‘겹-’과 관련하여 명사 ‘겹’은 ‘물체의 면과 면 또는 선과 선이 포개진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로 된 것’, ‘비슷한 사물이나 일이 거듭됨’ 등의 의미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접두사 ‘겹-’의 의미와 일치한다. 이에 따라, <표준web>에서 접두사 ‘겹-’의 용례로 실은 ‘겹주머니’는 ‘어기’와 ‘어기’가 결합한 복합어로 볼 수 있다.

2) 접두사 ‘도래-’와 관련하여 명사 ‘도래’는 ‘둥근 물건의 둘레’라는 의미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접두사 ‘도래-’의 ‘둥근’이라는 의미와 관련성이 높다. 명사 ‘도래’와 접두사 ‘도래-’에서 ‘둥근’이라는 의미는 ‘물체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다’를 의미하는 동사 ‘돌-’과 관련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때의 접두사 ‘도래-’는 명사 ‘도래’의 의미에서 약화되어 접사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접사화를 거치면서 원래의 의미가 많이 변하거나 추상화된 다른 접두사들에 비해 원의미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도래떡, 도래방석’ 등의 ‘도래’를 어기로 보고자 한다.

3) 접두사 ‘들1-’과 ‘먹-’은 각각 ‘야생으로 자라는’과 ‘검은 빛깔’의 의미로 정의되었다. 이 의미들은 각각 명사 ‘들[野]’과 ‘먹[墨]’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데, ‘들1-’의 의미인 ‘야생으로 자라는’의 의미는 명사 ‘들’의 의미인 ‘편평하고 넓게 트인 땅,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넓은 땅’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4) 접두사 ‘수/숫2-’와 ‘암-’은 각각 ‘새끼를 배지 않거나 열매를 맺지 않는’과 ‘새끼를 배거나 열매를 맺는’의 의미로 정의되었는데, 이 의미들은 명사 ‘수’와 ‘암’의 의미와 관련성이 높다. <표준web>에서는 위의 의미들 외에 ‘수-’와 ‘암-’이 각각 ‘길게 튀어나온 모양의, 안쪽에 들어가는, 잘 보이는’과 ‘오목한 형태를 가진, 상대적으로 약한’이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들 의미는 명사 ‘수’와 ‘암’의 의미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접두사 ‘숫2-’의 종성에 나타나는 ‘ㅅ’은 통시적으로 ‘수-’와 후행 어기가 통사적 구성이었음을 알리는 속격조사로 보이는데, 이는 ‘수’가 어기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표준web>의 접두사 중에서 ‘웃-’, ‘헛-’, ‘헛-’에서의 ‘ㅅ’은 ‘숫2-’의 ‘ㅅ’과 동일한 속격조사이고, 3.2.4절에서 살필 ‘쇠-’와도 관련이 있다.

5) 접두사 ‘실-’과 ‘줄-’은 각각 ‘가느다란, 얇은’과 ‘계속 이어진’의 의미로 정의되었는데, 이 의미들도 명사 ‘실[絲]’과 ‘줄’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6) 접두사 ‘쪽-’과 ‘참-’도 각각 ‘작은, 작은 조각으로 만든’과 ‘진짜, 진실하고 올바른’의 의미로 정의되어서, 명사 ‘쪽[片]’과 ‘참[眞]’의 의미와 관련성이 높다. 하지만 ‘참-’의 의미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은 의미 확장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먹을 수 있는’이라는 의미는 명사 ‘참[眞]’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해당 의미로 쓰이는 ‘참(3)-’은 접두사로 처리한다.

7) 접두사 ‘해/햇-’의 첫 번째 의미인 ‘당해에 난’은 명사 ‘해[年]’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표준web>에서는 2014년 12월에 접두사 ‘해(햇)-’의 두 번째 의미로 ‘얼마 되지 않은’이라는 의미를 추가하였는데, ‘얼마 되지 않은’의 의미와 관련된 ‘햇-’의 용례는 ‘햇병아리’를 제시하였지만, ‘해-’의 용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은’이라는 의미는 ‘당해에 난’이라는 의미에서 확장된 것으로 보이지만(당해에 나서 시간상으로 얼마 되지 않은), 명사 ‘해’와의 관련성은 ‘당해에 난’이라는 의미보다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해당 의미로 쓰이는 ‘해(2)/햇(2)-’은 접두사로 처리한다.

8) 접두사 ‘헛-’은 ‘이유 없는, 보람 없는/보람 없이, 잘못’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정의되었는데, ‘속이 비어 있음’을 의미하는 명사 ‘허[虛]’와 속격조사 ‘ㅅ’이 결합한 구성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명사 ‘허[虛]’의 의미와 접두사 ‘헛-’의 의미는 현재에는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 ‘헛-’은 접두사

로 처리한다.

9) 접두사 ‘홀-’은 ‘한 겹으로 된, 하나인, 혼자인’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정의되었는데, ‘짜를 이루지 아니하거나 겹으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된 명사 ‘홀’과 의미 관련성이 높다.

이렇듯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몇몇 예들은 접두사가 아닌 명사 등의 어기로 볼 수 있다. 특히 <표준web>에서는 (10ㄱ)의 예들 중 ‘도래-, 먹-, 암-, 쪽-, 참-, 홀-’의 항목에서 ‘도래, 먹 ...’ 등의 명사를 참고 어휘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서술 방식은 (10ㄱ)의 예들을 명사 어기로 파악하려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이 있다. (10ㄱ)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사 어기와의 ‘형태의 유사성’	명사 어기와의 ‘의미의 관련성’	어기/접두사 판정
겹-	O	O	명사 어기
도래-	O	O	명사 어기
들1-	O	O	명사 어기
먹-	O	O	명사 어기
수/숫2-	O	O	명사 어기
실-	O	O	명사 어기
암-	O	O	명사 어기
줄-	O	O	명사 어기
쪽-	O	O	명사 어기
참-	O	△	참(1,2)-: 명사 어기
			참(3)-: 접두사
해(햇)-	O	△	해(1)/햇(1)-: 명사 어기
			해(2)/햇(2)-: 접두사
헛-	O	X	접두사
홀-	O	O	명사 어기

(10ㄴ)은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표준web>에 등재

된 관형사와 형태·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이다. 접두사 ‘온-’은 ‘꼭 찬, 완전한, 전부의’ 등의 의미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전부의, 모두의’라는 의미로 정의된 관형사 ‘온’과 관련이 있다. <표준web>에서 접두사 ‘온-’의 용례로 명시한 ‘온달, 온마리, 온음’ 중에서 관형사 ‘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전부의’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예는 없지만, ‘꼭 찬, 완전한’ 등과 ‘전부, 모두’ 사이의 의미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10ㄴ)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형사 어기와의 ‘형태의 유사성’	관형사 어기와의 ‘의미의 관련성’	어기/접두사 판정
온-	O	O	관형사 어기

(10ㄴ)은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표준web>에 등재된 용언의 관형사형 등과 형태·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이다.

1) 접두사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의미로 정의되어, ‘다른 것은 섞이지 아니하고 온통’의 의미로 정의된 부사 ‘맨’과 관련이 있다. <표준web>에서 접두사 ‘맨-’은 『번역노걸대』의 ‘뒸’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때의 ‘뒸’가 ‘용언 어간+관형사형 어미’의 구성이었는지 관형사, 부사, 체언 등이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본고에서는 접두사 ‘맨-’과 부사 ‘맨’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맨발, 맨땅, 맨주먹, ...’ 등은 어기와 어기가 결합한 복합어로 보고자 하나, 형태 ‘맨’을 용언 어간 ‘매-’와 관형사형 어미 ‘-ㄴ’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듯하다. 다만 부사 ‘맨’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 용언 어간 ‘*매-’ 혹은 ‘*미-’가 문증이 되지 않기에 그 가능성만 제기한다.

2) 접두사 ‘선-’과 ‘잔-’은 각각 ‘서툰, 충분치 않은’과 ‘기늘고 작은, 자질구레한’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정의되어, ‘열매, 밥, 술 따위가 제대로

익지 아니하다’ 등의 의미와 ‘익숙하지 못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용언 ‘설다’와 ‘물건이나 글씨 따위의 크기가 작다, 일이 작고 소소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잘다’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10ㄷ)의 예들은 접두사가 아닌 부사 어기 또는 용언의 관형사형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표준web>에서는 (10ㄷ)의 예들 중 ‘선-, 잔-’은 각각 ‘설-+-ㄴ’, ‘잘-+-ㄴ’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서술 방식은 (10ㄷ)의 예들을 용언 어간의 관형사형으로 파악하려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이 있다.¹¹⁾ (10ㄷ)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언 어간 등과의 ‘형태의 유사성’	용언 어간 등과의 ‘의미의 관련성’	어기/접두사 판정
맨-	○	○	부사 어기
선-	○	○	용언 어간의 관형사형
잔-	○	○	용언 어간의 관형사형

3.2.2 <표준web>의 용언에만 선행하는 고유어 접두사

(9ㄴ)을 살펴보면, 용언에만 선행하는 접두사는 16개이다. 현대국어에서 부사가 용언 어간에 선행하는 점과 비통사적 합성어에서 용언 어간과 용언 어간이 결합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부사, 용언 어간과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 (9ㄴ)의 접두사들 중에서 <표준web>에 등재된 부사, 용언 어간의 형태와 유사하며, 그 의미가 관련이 있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11) 이와 관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말이’를 의미하는 ‘큰-’과 ‘말이가 아님’을 의미하는 ‘작은-’을 접두사로 처리하였으나, 2014년 3분기에 심의를 거쳐 접두사 ‘큰-’과 ‘작은-’의 항목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web>에서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의 ‘큰-’과 ‘작은-’을 용언 어간의 관형사형으로 파악한 것인데, 이는 본고에서 ‘선-, 잔-’ 등을 접두사가 아닌 용언 어간의 관형사형으로 보는 점과 관련이 있다.

(11) 되-, 드-, 설-, 휘-

(11)는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표준web>에 등재된 용언 어간과 형태·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이다.

1) 접두사 ‘되-’는 ‘도로’, ‘도리어, 반대로’, ‘다시’의 의미로 정의되었는데, 이는 ‘다시 하거나 도로 하다’의 의미로 정의된 동사 ‘되하다’의 어근 ‘되’와 관련이 있다. 접두사 ‘되-’의 용례들 중 ‘도리어, 반대로’와 관련된 ‘되잡다’의 의미에 ‘다시 잡거나 도로 잡다’라는 뜻풀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되-’의 ‘도리어, 반대로’의 의미도 동사 어근 ‘되-’의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2) 접두사 ‘드-’는 ‘심하게, 높이’의 의미로 정의되어,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의 의미로 정의된 동사 ‘들다’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때 접두사 ‘드-’의 의미 중 ‘심하게’와 관련된 ‘드넓다, 드높다, ...’ 등의 용례는 동사 ‘들-’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이에 대해 이선영(2003 ㄴ: 109-111)에서는 동사 어간 ‘들-’이 접사화 과정을 거치며 강세접두사 ‘들-’로 변화하였고, 이때의 ‘들-’은 ‘드넓다, 드높다, ...’ 등과 같은 파생어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¹²⁾ 이를 받아들인다면 <표준web>의 접두사 ‘드(들)-’은 인정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이선영(2006)에서 지적한 대로 접두사 ‘드(들)-’의 <표준web> 용례 중에서 ‘드날리다’만은 동사 ‘들다’의 의미와 관련이 되는 것이므로 어간이 복합된 ‘어간복합어’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접두사 ‘휘-’도 ‘마구, 매우 심하게’의 의미로 정의되어 접두사 ‘드-’와 관련성이 높다. 접두사 ‘휘-’는 ‘쫓쫓하던 물체가 구부러지다, 그 물체를 구부리다’의 의미로 정의된 동사 ‘휘다’에서 접사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12) 이선영(2003 ㄴ)에서는 중세국어의 어간 ‘들-’ 외에 본고에서 살필 어간 ‘드위-’와 ‘휘-’도 강세접두사화하는 과정을 설정하였다.

보이는데, <표준web>의 접두사 ‘휘-’의 용례 중에서 ‘휘갑다, 휘늘어지다, 휘말다, 휘젓다’는 동사 ‘휘다’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어간복합어로 볼 수 있다.

3) 접두사 ‘설-’은 ‘충분하지 못하게’의 의미로 정의되어, (10ㄷ)에서 살핀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 ‘선-’과 관련이 있는 용언 어간 ‘설-’과의 관련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듯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11)의 몇몇 예들은 접두사가 아닌 동사 어근 등의 어기로 볼 수 있다. (11)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언 어간 등과의 ‘형태의 유사성’	용언 어간 등과의 ‘의미의 관련성’	어기/접두사 판정
되-	O	O	동사 어근
드-	O	X	접두사
설-	O	O	용언 어간
휘-	O	X	접두사

3.2.3 <표준web>의 체언과 용언에 선행하는 고유어 접두사

(9ㄷ)을 살펴보면, 체언과 용언에 모두 선행하는 접두사는 13개이다. 3.2.1절과 3.2.2절을 감안하면, 이들 접두사는 명사, 관형사, 부사, 용언 어간, 용언 어간의 관형사형 등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9ㄷ)의 접두사들 중에서 <표준web>에 등재된 명사, 관형사, 부사, 용언 어간 등의 형태와 유사하며, 그 의미가 관련이 있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 (12) ㄱ. 걸-
 ㄴ. 늦-, 맞-, 몰-
 ㄷ. 막1-

(12ㄱ)은 명사 ‘겉’과 관련이 있고, (12ㄴ)은 용언 어간 ‘눅-’과 ‘맞-’, ‘몰-’과 관련이 있으며, (12ㄷ)은 부사 ‘막’과 관련이 있다. (12)의 예들 중에서 (12ㄱ)의 ‘겉-’과 (12ㄷ)의 ‘막1-’의 경우에는 각각 ‘어울리거나 섞이지 않고 따로,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그냥’ 등과 ‘거친, 품질이 낮은, 닥치는 대로 하는’ 등의 의미도 가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들은 ‘물체의 바깥 부분,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현상’의 의미로 정의된 명사 ‘겉’과 ‘몹시 세차게. 또는 아주 심하게, 아무렇게나 함부로’의 의미로 정의된 부사 ‘막’의 의미와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의미로 쓰이는 겉(3,4)-’와 ‘막(1,2)-’는 접두사로 처리한다.

이렇듯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12)의 몇 예들은 접두사가 아닌 용언 어간 등의 어기로 볼 수 있다. 특히 <표준web>에서는 (12ㄷ)의 예인 ‘막-’의 항목에서 부사 ‘막’을 참고 어휘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서술 방식은 (12ㄷ)의 예를 부사 어기로 파악하려는 본고의 논의와 관련이 있다. (12)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체언, 용언 어간 등과의 '형태의 유사성'	체언, 용언 어간 등과의 '의미의 관련성'	어기/접두사 판정
겉-	○	△	겉(1,2)-: 명사 어기
			겉(3,4)-: 접두사
눅-	○	○	용언 어간
막1-	○	△	막1(3)-: 부사 어기
			막1(1,2)-: 접두사
맞-	○	○	용언 어간
몰-	○	○	용언 어간

3.2.4 <표준web>의 기타 고유어 접두사

(8)의 <표준web> 고유어 접두사 목록을 중심으로 <표준web>에 등재된 형태와 관련이 있는 접두사들을 살핀 (10-12)의 목록 외에도 (8)의

몇몇 접두사들은 통시적으로 명사 또는 용언 어간 등과 관련이 있다. 이들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3) ㄱ. 가시-, 날(1)-, 만(1)-, 발-, 홀-
 ㄱ'. 쇠-, 옷-
 ㄴ. 뒤(2)-, 옛-,
 ㄷ. 빗-, 한1(1)-
 ㄹ. 외-

(13ㄱ)은 <표준web>의 접두사들 중에서 해당 형태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명사로 쓰인 예들이다. ‘아내, 아내의 친절’을 의미하는 ‘가시-’는 ‘아내’를 의미하는 중세국어 명사 ‘갓’과 관련이 있고, ‘날-’의 의미 중에서 첫 번째 의미인 ‘말리거나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의 의미는 중세국어 명사 ‘눌’과 관련이 있다. ‘만이, 그해에 처음 나온’을 의미하는 ‘만-’의 첫 번째 의미는 중세국어 명사 ‘믈’과 관련이 있고, ‘바깥’을 의미하는 ‘발-’은 중세국어 명사 ‘뵈’와 관련이 있으며, ‘짜이 없어 혼자뿐인’을 의미하는 ‘홀-’은 중세국어 명사 ‘홀’과 관련이 있다. (13ㄱ')은 최형용(2017: 364-365)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명사와 속격조사가 결합한 통사적 구성인 ‘쇼+ |, 웅+ㅅ’과 관련된 예들이다.

(13ㄴ-ㄷ)은 <표준web>의 접두사들 중에서 해당 형태가 중세국어 시기에는 용언 어간으로 쓰인 예들이다. (13ㄴ)에서 ‘몹시, 마구, 온통’과 ‘반대로, 뒤집어’를 의미하는 ‘뒤-’의 두 번째 의미는 ‘뒤집다’를 의미하는 동사 어간 ‘드워-’와 관련이 있고, ‘물래’를 의미하는 ‘옛-’은 ‘옛보다’를 의미하는 동사 어간 ‘옛-’과 관련이 있다. (13ㄷ)에서 ‘기울어지게, 잘못, 기울어진’을 의미하는 ‘빗-’은 ‘가로지다(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다)’를 의미하는 형용사 어간 ‘뵈-’에서 의미가 변화한 것으로 보이고, ‘큰’과 ‘정확한, 한창인’을 의미하는 ‘한1-’의 첫 번째 의미는 ‘많다, 크다’를 의미하는 형

용사 어간 ‘하-’와 관련이 있다.

(13ㄷ)의 ‘혼자인, 하나인, 한쪽에 치우친’, ‘홀로’를 의미하는 ‘외-’는 ‘외따로 하나인’을 의미하는 중세국어 관형사 ‘외’와 관련된 예이다.

(13)의 예들은 통시적으로 어휘적인 의미를 가진 어기였으나, 접사화를 거치기 이전의 어기가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으므로, 현대국어에서는 이 형태들을 어기에서 문법화가 적용된 접두사로 보아 왔다.¹³⁾ 본고에서는 (13)의 예들이 중세국어 시기의 용언 어간 및 명사, 관형사와 형태가 유사하고 의미가 관련이 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각 형태에 대응하는 용언 어간 및 명사, 관형사 등의 어기가 쓰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접두사로 처리한다. 하지만 (13)의 예들과 관련이 있는 중세국어의 명사, 용언 어간, 관형사가 현대국어의 방언형 등에서 공시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해당 예들은 접두사가 아닌 어기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8)의 목록 중에서 (10-13)에서 살피지 않은 접두사들도 있는데,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14) ㄱ. 체언에만 선행하는 접두사

: 강-, 개-, 군-, 돌-, 들-, 떡-, 막2-, 말-, 땡-, 메-, 민-, 벌-,
불1-, 불2-, 살-, 숫1-, 알-, 짝-, 차-, 찰-, 풋-, 한1(2,3)-, 한2-,
햇1-, 햇2-

ㄴ. 용언에만 선행하는 접두사

: 데1-, 데2-, 들2-, 들이-, 새-, 셋- 시-, 싯-, 처-, 치-

13) 이에 대해 이승희(1997: 76)에서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두 개의 어기가 결합된 합성어로 보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선행하는 어기가 자립성을 잃은 경우에는 파생어로 분석하는 단어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같은 단어에 대해 시기별로 다른 해석을 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이승희(1997: 81-86)에서는 ‘홀-’ 등의 예를 접두사가 아닌 ‘어근’이나 ‘단어구성소, 단어형성소’의 개념을 도입하여 단어의 통시적인 변화를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다고 논의하였는데, 이는 ‘접두사’라는 개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ㄷ. 체언과 용언에 선행하는 접두사

: 덧-, 얼-, 엇-, 올-, 짓-, 통-

(14ㄱ-ㄷ)의 예들은 <표준web>에 등재된 현대국어 및 중세-근대국어 시기의 명사, 용언 어간, 관형사, 부사, 용언의 관형사형 등의 형태와 관련이 없거나, 형태면에서 관련이 있는 형태가 있더라도 그 형태들 간의 의미 차이가 상당하여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접두사의 예들이다. (14ㄱ-ㄷ)의 예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14ㄱ)의 ‘살-’과 (14ㄴ)의 ‘데1-’은 3.2.2절에서 동사 어간으로 파악한 ‘설-’의 <표준web> 뜻풀이에서 각 형태들을 참고 어휘로 명시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표준web>에서 ‘데1-’은 ‘불완전하게, 불충분하게’를 의미하고, ‘살-’은 ‘온전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데1-’과 ‘살-’과 형태·의미면에서 유사한 어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예들 중에서 ‘살-’은 형태면에서 ‘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후행하는 어기가 각각 ‘명사’와 ‘동사’인 점이 다르다. 만약 ‘살-’이 ‘설-’과 관련된 형태라면 통시적으로는 어기로 처리할 수 있겠지만, 공시적으로도 어기로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의문이 든다.

본고에서는 (14ㄱ-ㄷ)의 예들을 ‘어기’로 인정할 수 있는 공시적인 예들과 통시적인 예들을 현재로서는 찾기 어려우므로, 잠정적으로 접두사로 인정하고자 한다.

3.3 <표준web>의 고유어 접두사 분류

본고에서는 ‘형태의 유사성’과 ‘의미의 관련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들 중에서 아래와 같은 몇몇 접두사들은 현대국어에서 명사, 부사, 용언 어간 등의 어기로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⁴⁾

(15) <표준web>의 접두사들 중 ‘어기’로 분류할 수 있는 예

- ㄱ. 명사 : 겹(1,2)-, 겹-, 도래-, 들1-, 막1(3)-, 떡-, 수/숫2-, 실-,
암-, 줄-, 쪽-, 참(1,2)-, 해(1)/햇(1)-, 흘-
- ㄴ. 용언 어간 : 늦-, 되-, 맞-, 몰-, 설-
- ㄴ'. 용언 어간의 관형사형 : 선-, 잔-
- ㄷ. 관형사 : 온-
- ㄹ. 부사 : 맨-

본고의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를 살피는 과정에서 여러 뜻을 가진 몇몇 접두사는 그 뜻 중에서 몇몇은 (15)와 같이 어기로 인식할 수 있지만, 몇몇은 접사로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이는 어간

14) 김창주·안효경(1998)에서는 ‘형태적 자립성’과 ‘의미 변화’를 기준으로 접두사와 합성어의 선행어기를 구분하였는데, ‘개-, 나-, 내-, 돌-, 뒤-, 들2-, 땅-, 맞-, 민-, 불-, 수-, 쇠1-, 알-, 암-, 얼-, 참-, 한-, 해-, 흘-, 흘-, 휘-’을 접두사로 처리하고, ‘간-, 갓-, 겹-, 겹-, 꺾-, 날-, 내리-, 늦-, 단-, 판-, 떡-, 도래(두레, 두리)-, 된-, 막2-, 말-, 떡-, 몰-, 선-, 설-, 소-, 실-, 안-, 애2-, 옥-, 짝-, 좀-, 쪽-, 줄-, 통-, 허튼-’은 접두사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 논의에서 ‘어기’로 처리한 접두사들 중, 본고에서도 어기로 처리한 항목은 ‘겹-, 늦-, 도래-, 몰-, 선-, 설-, 실-, 쪽-’이다. 다만, 김창주·안효경(1998)에서 살핀 접두사들이 어느 사전에 등재된 접두사인지는 언급이 되지 않아서, 명확한 대응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15) 이민희(2013, 2014)에서는 본고와 같이 <표준web>의 고유어 접두사들 중에서 형태적·의미적·음운적 변별성을 기준으로 25개의 항목을 접두사에서 제외하였다. 이민희(2013, 2014)에서 접두사에서 제외한 항목들 중, 본고에서 어기로 파악한 항목들은 ‘겹(1,2)-, 겹-, 도래-, 되-, 막-, 맨-, 수-, 숫2-, 실-, 암-, 온-, 줄-, 쪽-, 참(1,2)-, 해(1)-, 햇(1)-, 흘-’이고, 본고에서 접두사로 파악한 항목들은 ‘겹(3,4)-, 뒤2-, 막2-, 불2-, 쇠-, 짝-, 참(3)-, 통-, 한1-, 한2-, 해(2)-, 햇(2)-’이며, 이민희(2013, 2014)에서는 접두사로 파악하였지만 본고에서 어기로 파악한 항목들은 ‘늦-, 들1-, 막1(3)-, 맞-, 몰-, 선-, 설-, 잔-’이다. <표준web>에 등재된 접두사 항목이라는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지만, 이민희(2013, 2014)에서 접두사에서 제외한 항목과 본고에서 어기로 처리한 접두사 항목이 차이가 나는 주된 이유는 의미의 관련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박형우(2004)에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고유어 접두사 중에서 ‘겹-, 늦-, 들-, 설-, 선-, 실-, 온-, 작은-, 짝-, 쪽-, 참-, 큰-, 통-, 흘-’은 접두사 설정에 문제가 있는 어휘임을 지적하였다.

을 포함한 어기가 시간이 흐르며 접사화가 되는 점이 반영된 사전 서술로 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 <표준web>의 접두사들 중 공식적으로 접두사로 인정할 수 있는 예들은 60개로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16) <표준web>의 접두사들 중에서 ‘접두사’로 인정할 수 있는 예¹⁶⁾

가시-, 강-, 개-, 걸(3,4)-, 군-, 날-, 닳-, 데1-, 데2-, 돌-, 돌-, 뒤-, 드-, 들2-, 들어-, 떡-, 막1(1,2)-, 막2-, 만-, 말-, 맵-, 메-, 민-, 밭-, 벌-, 불1-, 불2-, 빗-, 살-, 새-, 셋-, 쇠-, 솟1-, 시-, 싹-, 알-, 얼-, 엇-, 옛-, 올-, 외-, 웃-, 짓-, 짝-, 찰(3)-, 찰-, 처-, 치-, 통-, 풋-, 한1-, 한2-, 핫1-, 핫2-, 해(2)/햇(2)-, 헛-, 흘-, 휘-

4. 맺음말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기준이 된 어기와 접두사를 판정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가지’와 ‘뒷가지’와 같은 씨가지(=접사)의 설정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그 객관적인 처리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지적한 김계곤(1968: 2)의 논의처럼 접두사를 판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접두사를 판정하는

16) 이와 관련하여 안효경(1994)에서는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민중서관, 1978)’을 비롯하여 총 9권의 사전을 토대로 각각의 사전에 등재된 접두사 목록을 비교하고, 개별 접두사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고에서 중심으로 한 ‘표준국어대사전’ 및 <표준web>은 안효경(1994)의 논의 이후에 편찬되었고, 각 사전의 편찬자들 간의 접두사 판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종 접두사 목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효경(1994: 52)에서 설정한 최종 접두사 목록은 73개로, 그 예들은 다음과 같다.

갈-, 갹(깁)-, 개-, 거-, 거머-, 겹1-(당기다), 겹2-(질기다), 골-, 군-, 나-, 날-, 내(넉)-, 녀-, 다-, 대-, 덧-, 데-, 돌-, 되-, 둘-, 뒤-, 드-, 들1-(부수다), 들2-(개), 들어-, 땅-, 막-, 만-, 맞-, 맨-, 메(땀)-, 민-, 밭(밭)-, 벌-, 불-, 빗-, 쇠-, 수-, 솟-, 알-, 암-, 애-, 어리-, 얼-, 엇-, 올(오)-, 옹-, 외-, 이듬-, 일-, 짓-, 찰(차, 찰)-, 참-, 처-, 치-, 한1-(여름), 한2-(데), 핫1-(바지), 핫2-(어미)-, 해(햇)-, 헛-, 흘-, 흘-, 휘-

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면, 몇몇 접두사는 어기로 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고에서 접두사 판정의 기준으로 삼은 ‘형태의 유사성’과 ‘의미의 관련성’ 외에 다른 접두사 판정 기준이 추가된다면, 본고에서 구분한 접두사의 항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접두사’를 설정하는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려운 만큼, 최소한 각각의 논의에서 설정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일률적 분류가 중요하다.

<표준web>의 접두사 목록을 살피는 과정에서 ‘그 형태와 의미가 다른 품사와 관련을 맺기 어려운 경우’나 ‘그 의미가 관련이 있는 형태의 의미와 관련을 맺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두사로 인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접두사’란 존재는 통시적 관점에서 과거에는 ‘어기’였을 가능성이 높고, 궁극적으로 유창돈(1964)의 논의처럼 ‘접두사’란 존재는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¹⁷⁾ 본고에서 원형태와 의미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접두사로 처리한 몇몇 형태도 그 의미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공식적으로 해당 형태는 ‘접사’가 아닌 ‘어기’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본고에서 ‘어기’로 처리한 형태가 미래의 어떤 시기에는 ‘어기’로 쓰이지 않는다면, 그 시기의 해당 형태는 ‘접사’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곧 시기에 따라 공식적으로 ‘접사’ 나아가 ‘접두사’란 항목이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표준web>에 실린 ‘고유어’ 접두사들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차후에 <표준web>에 실린 96개의 ‘한자어’ 접두사들을 비롯하여, <표준web> 이외의 여러 사전들의 접두사들 및 여러 방언들의 어휘 형태들을 더불어 살핀다면 한국어의 접두사 설정과 그에 따른 한국어 접두사 목록에 대한 한층 진전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17) 유창돈(1964: 362)에서는 “接頭辭와 接尾辭의 差異는 品詞轉成의 作用에 있다. 즉 接尾辭는 基語로 하여금 다른 品詞로 轉成시키는 機能을 하지만 接頭辭는 뜻을 더하는 作用 밖에는 하지 못한다. 이는 곧 國語에는 原來 接頭辭란 存在하지 않고 單純히 複合辭 形成에서 語義 弱化 내지 語義 轉換으로 接頭辭의 機能을 하고 있음을 추적케 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밑줄 필자)

Abstract

The Study of Native Prefix in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Seo, Jeong Ho

In this article, attention is paid to the fact that both the ‘prefix’ of the Korean derivation word and the ‘base’ of the Korean compound word have a lexical meaning and raise questions about the Korean prefix.

First, we examine the precedent arguments that the Korean prefix has a grammatical function. Nevertheless, we have confirmed that the Korean native prefixes are stronger in lexical meaning than the grammatical function. In addition, we confirmed that the Korean prefixes set in various preceding discussion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nd we have observed that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Korean prefixes and bases from some previous ones.

Next, we examine the principle of selecting the affix headword in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nd use the ‘similarity of form’ between the prefix related base as the first standard to judge the prefix and the base, and use the ‘relevance of meaning’ between the prefix related base as the second standard to judge the prefix and the base. Accordingly, the prefixes satisfying both the ‘first standard’ and the ‘second standard’ among the prefixes of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are determined to be in base of the corresponding form and the prefixes satisfying ‘first standard’ but not satisfied the ‘second standard’ were determined to be in prefix of the corresponding form.

As a result, 95 native prefixes excluding the prefixes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web version of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were applied to the first and second standard, Prefix ‘*geot*(1,2)-, *gyeop*-, *neut*-, *dorae*-, *doe*-, *deul*1-, *mak*1(3)-, *mat*-, *maen*-, *meok*-, *mol*-, *seon*-, *seol*-, *su/sut*2-, *sil*-, *am*-, *on*-, *jan*-, *jul*-, *jjok*-, *cham*(1,2)-, *hae*(1)/*haet*(1)-, *hot*-’ were judged to be base.

Keywords :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prefix, base, similarity of form, relevance of meaning

참고문헌

□ 기본자료

국립국어연구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 편(2017), 『표준국어대사전(web version)』, 국립국어원.

□ 논저

구본관(2002), 「파생어 형성과 의미」, 『國語學』 39집, 국어학회, 105-135면.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1-408면.

국립국어연구원 편(2000), 「『표준국어대사전』편찬 지침 I」, 국립국어연구원, 1-233면.

기주연(1991), 「近代國語의 接頭辭 設定의 限界와 基準에 관한 考察: 17,8世紀 國語資料를 中心으로」, 『韓國學論集』 19輯, 漢陽大學校 韓國學研究所, 5-32면.

김계곤(1968ㄱ), 「현대 국어의 조어법(word formation) 연구: 앞가지(Prefix)에 의한 파생법」, 『論文集』 3집, 仁川教育大學校, 57-89면.

김계곤(1968ㄴ), 「현대 국어의 ‘앞가지’(접두사, prefix) 처리에 대한 관견(管見): 두가지 국어사전(한글 학회:한글소사전과 이 회승(국어대사전)을 중심으로」, 『國語國文學』 7집, 문창어문학회, 1-31면.

김창섭(1998),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새국어생활』 8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5-22면.

김창주·안효경(1998), 「접두사와 합성어의 선행어기와의 구분」, 『産業開發研究』 6집, 公州大學校 産業開發研究所, 247-253면.

노명희(2004), 「어기의 범주를 바꾸는 접두한자어」, 『韓國言語文學』 53집, 한국언어학회, 123-151면.

박형우(2004), 「고유어 접두사 설정의 기준」, 『청람어문』 28집, 청람어문학회, 391-419면.

- 송철의(1992/2008), 『國語의 派生語形成 研究(國語學叢書 18)』, 태학사, 1-340면.
- 안효경(1994), 「현대국어 접두사 연구」, 『國語研究』 117號, 國語研究會, 1-96면.
- 유창돈(1964), 『李朝國語史研究』, 宣明文化社, 1-423면.
- 유현경(1999),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사전편찬학 연구』 9권,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원, 183-203면.
- 이관규(1988), 「국어 접두사 재고: 그 존재에 대한 부정적 견해」, 『語文論集』 28輯, 안암어문학회, 339-350면.
- 이민희(2013), 「한국어 접두사의 범위 연구」, 『문창어문논집』 50집, 문창어문학회, 187-208면.
- 이민희(2014), 「한국어 접두사의 범위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1-78면.
- 이선영(2003ㄱ), 「‘용언 어간+어기’형 단어에 대한 검토」, 『형태론』 5권 1호, 박이정, 31-51면.
- 이선영(2003ㄴ), 「접두사화에 대한 고찰」, 『한국어 의미학』 13집, 한국어의미학회, 97-116면.
- 이선영(2006), 『국어 어간복합어 연구(國語學叢書 53)』, 태학사, 1-205면.
- 이승희(1997), 「접두파생어의 통시적 기술을 위하여」, 『국어학논집』 3권, 태학사, 75-88면.
- 이운영(2002), 『『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연구원, 1-355면.
- 이익섭(1975), 「國語 造語論의 몇 問題」, 『東洋學』 5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55-165면.
- 이재성(1997), 「접두사 설정 기준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29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87-211면.
- 이홍식(1993), 「현대국어의 고유어 접두사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74면.
- 최윤지(2013), 「파생과 합성, 다시 생각하기: 복합어 구성요소의 교차 분류를 위한 시론」, 『國語學』 66집, 국어학회, 265-306면.
- 최형용(2017), 「단어 형성과 형태소」, 『國語學』 81집, 국어학회, 351-391면.